





세계 문화 유산



종묘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왕 및 왕비의 신주(神主)를 봉안한 종묘(宗廟)는 지난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종묘는 원래 정전(正殿)을 이르는 말이며 태묘(太廟)라고도 한다. 태조 3년(1394)에 감산(坎山)을 주산으로 하는 임좌병향(壬坐丙向)의 터를 결정하여 다음해 9월에 일차 영건(營建)이 끝났다. 종묘의 입지는 고대 중국 「주례(周禮)」〈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좌묘우사(左廟右社)’의 배치 원칙에 따라 경복궁의 동쪽으로

결정되었다. 일차 영건 이후 명종 원년(1546)까지 후속 건축이 계속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이후 광해군 즉위년에 중건하여 지속적인 개수와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종묘는 이른바 동당이실(同堂異室), 즉 한 건물 안에 방을 따로 하여 여러 신위를 함께 모시는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 결과 모셔야 할 신위가 늘어나면서 건물도 계속 증축해야 하였다. 다른 건물들에서 볼 수 없는 동일한 형태가 길게 이어지는 독특한 건축 형태를 지니게 된 이유이다. 종묘 정전은 그래서 정면이 19칸에 이른다. 측면은 3칸, 익공계 구조의 박공 지붕이다. 한편, 종묘에는 한때 폐위되었다가 숙종 때 복위된 단종의 신위는 영녕전(永寧殿)에 모시고 있으나, 폐위된 연산군·광해군의 신위는 봉안되어 있지 않다. ㉮

편집실